

질병은 일탈(逸脫)이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최 상 목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질병에 의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질병(아픔)을 일탈(逸脫)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일탈이란 정해진 사회체계 안에서 사회규범을 어기는 모든 행위나 형태를 말한다. 질병이란 신체에 객관적으로 감지되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떤 아픔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자의 경험이 있거나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질병은 사람들의 삶의 질서와 의미를 위협하는 것으로 고통을 초래시키는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질환으로 얻어지는 일탈은 사회적인 정상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특권을 부여 받아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면제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것은 가벼운 일탈이며 폐렴은 심한 일탈이 되는 셈이다.

말기 암 같은 것은 정상적인 의무에서 영원히 면제되고 절망적인 일탈이란 특성이 고려되어 추가되는 특권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질병이 일탈이라면 일탈은 기대되는 형태를 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질환은 불편하고 죽음을 내포할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 기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방해 받을 수 있어 일상 업무와 기능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 아픈 사람은 건강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일탈의 개념이 뜻하는 것처럼 사회 규범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의료의 목적은 일탈된 사람의 질환을 통제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인 메커니즘이다. 질병은 의사와 환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의 틀 속에서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양쪽에 다 어울리는 규범과 가치를 찾아가는 하나의 유형화된 사회적 활동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일을 하고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쾌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환자와 의사 관계는 상호의존적일지라도 신분과 권력은 대등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의사는 의사의 역할에 맞는 권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반면 환자는 치료행위를 무조건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의사의 권력은 환자가 원하고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환자는 질병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질병(아픔)과 일탈을 같은 뜻의 맥락에 놓고 본다면 일탈은 오로지 의학적 방식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의사의 권력과 권위는 매우 고취되고,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의사들은 사회로부터 일탈의 통제기능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성직자의 역할과도 유사해지기도 한다.

아프다는 것(being sick)은 명백히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아픔을 느끼는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고 민족 집단에 따라 문화적 차이도 있다. 똑같은 증세를 가진 두 사람이 아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한쪽은 질병에 관심을 갖고 치료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증상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질병의 고통은 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한 삶의 온전함이 위협 받거나 훼손될 때도 발생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자아(自我)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통증이 있더라도 환자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 질병으로 폐쇄된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인간조건을 충족하고자 할 때 느끼는 고통이나 추월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값지고 보람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마치 성직자의 고행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의 고행한 명제들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증이나 호흡곤란 또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선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인간적 아픔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병에 있어 아픔이란 어쩔 수 없는 인간(person)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고통을 겪는 주체는 인간이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아픔(질병)이라는 육체적 실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이르게 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고통의 배경이 된 질병을 인간과 고통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사고와 방식을 지금 현대의학의 지식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질병에 대한 일탈을 일반적인 사회적 속성에 따라 의사에 의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극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과학적 근거의 실체를 환자가 실제로 느끼고 고통 받는 인간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질병증상의학에서 병을 앓고 있는 인간중심의학으로 서서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의학의 주된 임무는 인간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질병을 앓으면서 겪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 속에서 찾아내어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힘을 통해서 고통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통(아픔)은 주관적 느낌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에 따르는 외로움, 절망, 갈등 등은 모두 인간적이며 사적(私的)인 상태인 것이다. 직접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 그 고통을 더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학은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내면적으로 느끼고 직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다. 지금의 과학적 의학시대의 환자의 고통은 점점 무시되거나 치료대상에서 소외되고 비인간적이고 금속성의 기질만 충천해 있다. 병원에 오는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되며 치료의 결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더욱 많아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의 아픔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람있게 힘차게 살며, 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위에

파도가 밀려오듯 신체의 아픔에 나 자신을 그대로 맡겨버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무아지경을 만드는 일도 고통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다. 또 인간의 위협받고 있거나 파괴된 부분을 다른 의미 있는 상황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종교이던 예술, 문화활동이던 간에...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아파)스러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온전함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확실한 고통(아픔)을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아프게 된다. 질환은 삶의 어두운 쪽으로 안내하는 시민권이다. 모든 사람을 건강과 질환(아픔)의 왕국에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항상 좋은 쪽의 시민권을 선호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최소한 잠시만이라도 아니 영원히 아픔의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손탁(Susan Sontag), 1978』